

김백주『한반도 냉정과 국제정치역학 : 대립에서 데탕트로의 길』아카시서점, 2015 년
(金伯柱『朝鮮半島冷戦と国際政治力学 : 対立からデタントへの道のり』明石書店、2015 年)

책 개요:

글로벌 냉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만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?
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현상(Status Quo)의 유지(분단의 국제적 승인, 두 개의 코리아)와 변경(통일, 하나의 코리아)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국제분쟁의 성격을 지닌다.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분단국가 문제로서의 한반도 냉전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.

이 책은 한반도 냉전의 지속 원인, 즉 한반도 데탕트의 실패 원인을 한국전쟁 정전 후 찾아온 세 차례의 데탕트 기회를 사례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다국간 관계의 정치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밝히고 있다.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한반도 냉전의 6 개 당사국이 (1)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유지, (2)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, (3)교차승인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현상유지의 '제도화'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와 현상변경 중 어느 쪽을 선호했는지, 그리고 그 선호가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를 관련국의 외교사료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고 있다.

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 책은 한반도 데탕트의 실패 원인이 한편으로 한반도 냉전의 주된 대립축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6 개 당사국의 선호가 변화했지만, 다른 한편으로 6 개국의 선호가 여전히 현상유지의 '제도화'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한다.

저자 약력:

1974 년 출생. 2011 년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. 2011~2015 년 도쿄대학대학원 정보학환 특임조교수. 2014 년, 도쿄대 박사(학술). 현재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학술연구원.

[관련 URL] <http://www.akashi.co.jp/book/b209934.html>